인텔코리아 2012 교육기부 박람회 참여

- 톰 번스 인텔 월드 어헤드 프로그램 총괄 이사
- 학생은 스마트제품에 익숙한데 교실 수업 아직도 '19 세기'
- 학부모•학교•지역공동체 힘모아 '21 세기 교육의 틀' 짜야

"21 세기 스킬을 배워야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다."
2012 년 3 월 16 일 일산 킨텍스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한 국제 교육 기부 콘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톰 번스(Tom Burns•사진) 인텔 월드 어헤드 프로그램 총괄 이사는 "비판적 사고•협업•디지털 스킬 등 21 세기 스킬을 배워야 글로벌 동료들과 벌이는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다"면서 "특히 교사, 학부모들이 기술에 익숙하지 않으면 21 세기형 인재를 키우는 교육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번스 이사를 만나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21 세기 스킬에 대해 물어봤다.

- 21 세기 스킬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현재 학생들은 21 세기를 살고 있지만 학교문을 들어서면 19, 20 세기로 돌아간다. 학생들이 밖에 나가면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고 집에선 컴퓨터, 노트북을 통해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킹,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교실 수업 현장을 보면 19 세기에 머물러 있다. 교사는 칠판에 분필로 판서를 하고 학생들은 종이노트에 연필로 필기를 하고 교과서를 읽는다. 21 세기가 열렸지만 대부분 교사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21 세기 스킬을 소개해 달라.

▶ 가장 중요한 스킬은 비판적 사고다. 여러 조직, 단체, 학부모, 교사들이 우려하는 점은 우리 자녀들이 너무 다양한 채널에서 정보를 접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들이 휴대폰, TV, 인터넷, 소셜 사이트 등을 통해 엄청난 정보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채널을 관리하는 도구가 필요해졌다. 너무 많은 정보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 어떤 정보가 다른 견해,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를 키워야 한다.

둘째, 협업능력이다. 세계화 시대에 전 세계 학생들은 양육 방식, 문화, 언어가 다르지만 공동의 필요가 있다. 모든 사회는 노령 인구를 도와야 하고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더 나은 일자리, 헬스케어를 제공해야 한다. 공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21 세기에는 국경을 넘어 협업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을 갖추지 못하면, 어린이, 학생, 심지어 성인들까지 동료들과의 상급 학교 진학, 일자리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 인텔에서 제공하는 교육 기부를 소개한다면.

▶ 인텔은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교육 기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15 년 이상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데, 특히 STEM 교육,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인텔의 혁신도 엔지니어, 과학자들이 새로운 기술의 조각을 맞추면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사회에 공헌한다.

- 21 세기형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견해는.

▶ 디지털 콘텐츠가 단순한 디지털 페이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종이 교과서 속 내용을 디지털화 한다고 21 세기형 디지털 콘텐츠가 되는 게 아니다. 학생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종이 교과서처럼 읽기만 한다면 디지털 콘텐츠이지만 유용성이 떨어진다.

21 세기형 디지털 콘텐츠는 학습 과정에서 협력, 커뮤니케이션, 창조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제공해야 하고 수업 자체가 상호작용과 실험으로 구성돼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는 학생들의 폭넓은 사고를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

- 21 세기 스킬 교육을 담당할 교사, 학부모들에게 조언한다면.

▶ 세상은 변하고 있다. 우선, 교사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 전통적인 교사들은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지만 21 세기형 교육에서 좀 더 지휘자에 가까운 역할을 해야 한다.

특정 교과목을 배우는 학생의 학습 여정에 올바른 길을 제시하면 된다. 더 이상 교사가 모든 지식의 저장소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학부모들은 기술 환경에 편해져야 하고 지역공동체, 학교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그렇다고 교실에 PC 를 많이 들여놓는다고 21 세기 교육이 이뤄지는 게 아니다. 학부모가 디지털 마인드와 지식을 갖추고 학교, 지역 공동체와 함께 21 세기형 교육의 틀을 짜나가야 한다.

-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한국 학생들에게 조언해 달라.
▶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한국 학생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나면 국경을 뛰어넘어 활약해야 한다. 기업가들이 부를 창출해야 일자리도 창출되는데,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몇 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왜 힘들게 애플리케이션을 찾아다녔지"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각종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 자신의 컴퓨터로 찾아오게 하는 등 클라우딩, 인터넷상에서 서비스 분야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지난 수년간 미국 시장에서 벌어진 혁신 사례를 보면 페이스북이 7~8 년밖에 안된 기업이고 트위터는 4~5 년 됐고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스퀘어가 3~4 년된 기업이다. 태블릿 PC, 스마트폰에 불어올 10 년 후 변화를 예측해 보자. 이 변화를 예견해낼 학생들에게 무한한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관련기사>
비판▪협업▪디지털 등 21 세기 스킬 배워야